

7. 새로운 (신앙) 공동체/대안공동체 (3:7-35)

A. 대안/대항 공동체

- 혈연, 지연을 넘어 지배자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하느님 나라운동을 펼침 (3:7-12)=> (갈릴리, 유대와 예루살렘,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,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모임). Q. Popular response ??
 -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배척: 친족(3:21), 이웃(6:3), 제자들(14:50)
 - 권세/지배체제로부터 끊임 없는 감시(2:7 <=1:24), 제거대상(3:6)
 - 예수는 아직 갈릴리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음(1:28, 39 =>5:1); 이 기록(summary statement)은 마가공동체 이야기를 반영=> 예수 시대(30년대)와 마가공동체 시대(70년대)를 동시에 생각해야 (성서는 내게 관련이 있기에 의미가 있다. 다른 말로, 성서는 나/우리의 말로 재해석 되어야)
- 예수운동: Less than perfect
 - 베드로, 야고보, 요한 (중심 인물)은 예수를 오해; 유다는 예수를 판 자;
 - “가나안 사람 시몬”(3:18)=>Why the Canaanite? Σίμωνα τὸν Καναανῆται => 마 10:4//막 3:18; Χαναανῆται in 마 15:22 (막 7:26, Syro-Phenician 헬라인); Luke reads: Σίμωνα τὸν καλούμενον ζηλωτὴν (눅 6:15; 행 1:13)<< ζῆλος (zealous)=>Zealot(NIV); 혁명당원(공동번역)
- 여기서 열 둘(12)은 상징적 의미—(이스라엘 12 부족=> restoration movement=> 바리새인 제자, 요한제자 금식, 왜 니네는?), 새로운 예수 공동체. “제자”(μαθητής, disciple)는 이미 여러번 등장함 (2:15, 16, 18, 23; 3:7, 9); cf. “사도”(ἀπόστολος, apostle)=>6:30 (3:14, 표준새번역, 공동번역)
- 열 둘을 선택한 이유(3:14-15): ①함께 지내기(ἵνα ὦσιν μετ’ αὐτοῦ); ②소명 주기—전도/귀신 축출
 - 함께 지내기(ἵνα ὦσιν μετ’ αὐτοῦ);
 - 보냄(소명)—전도/귀신 축출 (ἵνα ἀποστέλλῃ αὐτούς—(a)κηρύσσειν καὶ (b)ἔχειν ἐξουσίαν ἐκβάλλειν τὰ δαιμόνια)=>예수가 한 일(1:38-39=> 6:7; 9:37). 보냄의 목적은 전도와 귀신축출.
 - Q. No healing? => 전도와 귀신축출은 한가지 일이다=> 신학 다시하기 [6:7=>더러운 영을 제압할 권세]
-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자
 - 예수의 형제, 자매, 모친 (부친은? 8:38; 11:25; 13:32; 14:36) => "마리아의 아들"(6:3)과 인자(사람의 아들)가 가리키는 바는?
 - 남의 눈에—마가/예수/하느님의 복음(신학)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, 예수는 한갓 “미친 사람”이요(3:21), 귀신과 짝하는 사람(3:22)이나, 더러운 예수와 복음을 위해 “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”(10:29)들도 있다=>100 배? 그 의미는?
 - 그러면, 나는? 너는? 우리는? (open-ended)

B. 하느님 나라와 가족—Sandwich technique (3:20-21, 31-35)=>3:20-30; 5:21-43; 6:6b-20; 11:12-25; 14:1-11; 14:53-7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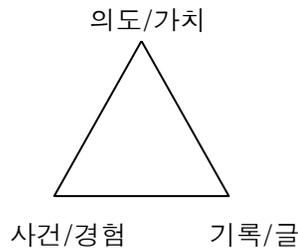
- 가운데 삽입된 이야기가 해석학적 열쇠 제공; 가족의 오해/몰이해(3:20-21, "mad")—이데올로기 대립(3:22-30, "demon possessed")—새로운 가족/대안공동체(3:31-35)
- 이데올로기 대립: 하느님 나라 vs. 로마제국
 - 제국/왕조 (Kingdom, House/Dynasty); “Binding the strong man”
 - 오늘날의 제국은? (“맘몬” μαμωνᾶς, 마 6:24//눅 16:13=> FRB?)
- 용서받지 못할 죄/제도적인 죄(지배체제)=> (사람들에게 행한) 다른 모든 죄/빛은 용서 받아야 (πάντα ἀφεθήσεται τοῖς υἱοῖς τῶν ἀνθρώπων τὰ ἁμαρτήματα καὶ αἱ βλασφημίαι ὅσα ἐὰν βλασφημήσωσιν.)
 - KJV: All sins shall be forgiven unto the sons of men
 - NIV: all the sins (and blasphemies) of men will be forgiven them
 - 개역: 사람의 모든 죄는 ... 사하심을 얻되
 - 표준새번역: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... 용서를 받을 것이다
 - 공동번역: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...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
 - AWP: [그들이]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는(All sins against the sons of human beings)... 용서를 받을 것이요 (Dative of Advantage/Disadvantage) ***마가공동체를 의식 (여기서 "사람들"[the sons of human beings] => anyone, and by extension, 지배계급 포함)

- 신성모독(3:29 — speaking against God) vs. 죄/빚 (against human beings) => 예수에게 씌운 죄명(2:7; 14:64)=> 그러나 지배체제(the scribes from Jerusalem)는 신성모독의 뜻을 오해
- 독자는 예수의 신학/영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(1:10). 그 외에는 귀신들(1:24) =>?? 게임/싸움에 졌으니까(1:13). 왜 굳이 "메시아 비밀"로 풀려고 할까?
- 막 1:24 에서와 마찬가지로 더러운 영(중성)이 사람(남성)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 => 3:11 τὰ πνεύματα τὰ ἀκάθαρτα (neut. pl.) λέγοντες (mas. pl.)
- 3:12 예수께서 그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꾸짖으시니라. "꾸짖다"(ἐπιτιμάω; 1:25; 3:12; 4:39; 8:30, 32, 33; 9:25; 10:13, 48). 대부분 주석이 예수의 "메시아비밀"(Messianic Secret)과 관련해 해석. 여기서 "그"는 누구를 가리킬까? 예수 혹은 하느님의 아들?

신학 다시 하기

- 성서의 사건/경험과 우리들 사건/경험과의 연관성=> "구원" => 어떻게? (의도/가치/뜻의 재발견)

모든 문서, 문학작품에는 이를 가능케 한 어떤 사건/실마리가 있으며, 아울러 이 작품을 통해 전하려는 의도(가치)가 있다. 독자의 으뜸된 임무는 저자의 의도/뜻을 살피는 일이다.



- 기록(글): 시대의 언어, 시대의 정신(Zeitgeist) => 사건, 동영상과의 차이
- 사건(경험): 주관적, 특수성 (사건에 차이는 있지만, 경험은 공유할 수 있다)
- 의도(가치): 경험을 글로 남기게 하는 궁극적 이유. "구원"의 내용 (자유, 행복,...)

**시대와 장소를 넘어 성서가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사건(경험)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Q1. 우리는 이 사건(경험)을 어떻게 표현할까? => 신학 다시하기; Q2. 성서/전통/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의도(가치)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, 굳이 정형화된 사건/경험(특정 종교)을 통해야 할까?=> 종교간의 대화; Q3. 맘몬(자본주의, FRB)를 넘어서, 이 가치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? 그렇다면... 그 길은?

- 신학(하기)의 차이. 삶에 변화를 주는 신학=> 바알세불의 영역을 침범 (강한 자 보다도 더 강한 자; 막 1:7)=> 또 다른 권세의 등장(1:27; 11:28=>3:15; 6:7). 귀신들은 알아 봄 (3:11). (cf. 삼무엘상 5 장)
- 성령을 훼방(중상, 비방, 모욕)하는 자=>마가/예수/하느님의 복음을 중상, 비방, 모욕하는 자. 성령/더러운 영=>하느님의 일/사람의 일(8:33). 우리의 할 일=> 제국주의 시녀가 된 신학에서 성서적 신학으로; 현대인들이 외면하는 교회위주 신학에서 "신학 다시하기"로 (네가 어떻게 읽느냐?—눅 10:26;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—막 8:29)
- 예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. 후기에는 그 죽음의 의미를 찾으려 함(대속의 교리).